외국인 유학생-한국 학생 간 쌍방향 교류 활발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멘토-멘티 체육대회 성황리 마쳐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위원장 윤명숙)은 지난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사업단이 운영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스터디어시스턴트'와 '버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두 프로그램은 한국과 외국인 학생을 2대 2로 매칭하여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디프로그램은 지난 9월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유학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을, 스터디어시스턴트는 학부과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외국어, 전공과목을 함께 매주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팀빌딩 게임, 계주, 장기자랑 이벤트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어울림 한마당 시간이 됐다. 참여 학생간 긴밀한 교류로 친밀감 및 타문화 포용력,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을 통해 남은 그룹 활동기간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지난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사업단이 운영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스터디어시스턴트'와 '버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에 쌍방향 교류가 활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학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에게 도 타문화 포용력과 협업능력을 키워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소방서, 전국체전기간 '대형인명피해 ZERO' 도전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전국체육대회를 맞아 지난 15일 오후 다중운집지역인 고창터미널, 고창전통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집중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국체전과 연계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전국체전 기간 중 예측불가능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바 사전에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여 고창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의 '대형인명피해 ZERO'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소방차길터주기 캠페인은 꾸준히 전개하고 있지만 특히 전국체육대회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작은틈이 큰 인명피해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소방출동로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 번암면, 지진 발생 대피·화재진압 훈련 실시

장수군 번암면은 16일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진 발생 대피 훈련 및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내 대피훈련, 건물 밖 대피소 이동, 실외 대피훈련 등을 진행하고 지진으로 인한 화재진압 훈련도 병행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생활과학교실, 정읍평생학습축제 참가 과학체험부스 운영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가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이 최근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열린 정읍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생활과학교실에서는 '소리의 신비, 눈으로 보는 소리의 파동'이라는 주제로 소리의 파동을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열었다. 컵의 구멍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면 소리의 파동이 거울 종이에 전달되어 레이저 포인트에서 쏘아진 빛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실험이다. 높고 낮은 소리, 크고 작은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어 파동의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무척 흥미로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서 중앙지구대, 청소년탈선 우려지역 예방 순찰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중앙지구대(지구대장 이동권)는 관내 청소년탈선 우려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순찰을 실시했다.

중앙지구대에서는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남원지역의 행사분위기로 자칫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소란과 같은 일탈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공가와 폐가 등부터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뒤쪽까지 꼼꼼하게 순찰, 범죄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체감치안도 향상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에 노력했다.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같은 일탈행위가 발생 치 않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단체를 통한 꼼꼼한 방범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서 청문실, 사례분석 통한 비위예방 활동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음주 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청렴하고 깨끗한 고창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의무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과 공감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의무위반 행위 발생에 따라 비위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마음을 모았다.

청문감사관 송태석 경감은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서 및 지·파출소 전 기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 직원들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해 단 한건의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무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함께 직원들이 공사 생활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 등 마음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진장소방서, 장수중 1학년생 대상 진로체험교실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15일 장수중학교 1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소방진로와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교실을 열었다.

이번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에게 ▲ 소·소·심 교육 및 방화복 등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착용체험 ▲ 미래의 직업 전망 ▲ 조직과 업무 소개 ▲ 소방에 대한 궁금증 해소의 시간 순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됐고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일을 하는지 알게된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병덕 예방안전팀장은 "학생들이 소방관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미래체험관 교육을 운영해 학생들이 119를 보다 가깝고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